

# 국어 어미 ‘-ㄴ지’의 문법화와 통사적·의미적 특징

이금희\*

|| 차례 ||

- I. 서론
- II. 연구사
- III. ‘-ㄴ지’의 문법화
- IV. ‘-ㄴ지’의 통사적·의미적 특징
- V. ‘-ㄴ지’와 ‘-르지’, ‘-르는데’의 의미 차이
- VI. 결론

## 【           】

본고는 국어의 ‘-ㄴ지’ 어미의 문법화 과정을 살피고 이 어미의 통사적 범주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ㄴ지’는 중세국어에서 주로 내포문 구성에서 상위문 서술어로 ‘모르다, 알다와 같은 인지동사가 나타나는 어미였는데 근대국어로 오면서 연결어미 구성에서 사용되고 19세기 이후에는 종결어미 형태로도 나타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어미가 출현하는 시기를 고려해 동사구 내포문 어미에서 연결어미로,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것으로 보았는데,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용법을 검토한 결과 모두 동사구 내포문 어미에서 상위문 서술어의 생략을 통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ㄴ지’의 의미는 기존 연구에서나 사전에서 내포문 구성에 쓰일 때 ‘막연한 의문과 의심’, ‘추측’, ‘놀랄 정도로 그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는데, 상위문 서술어가 인지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가 분포할 경우에 [‘막연함’이라는 의미 자질은 가질 수 없으므로 ‘-ㄴ지’의 의미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결어미의 의미에는 뒷절에 대한 ‘원인과 근거’라는 의미가 있는데 ‘놀랄 만한 정도성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와 ‘화자가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강의전담 조교수

추측한 원인'으로 세분될 수 있고 이 외에 화자가 추측한 후행절이 발생하게 된 '전제 사항이 오는 경우도 있다.

'-ㄴ지'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 '-르는지', '-르지'와 교체되어 나타날 수 있는데 발생할 사건이 확실성 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ㄴ지'가, 그리고 그 정도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르는지'와 '-르지'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문법화, 동사구 내포문 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추측, 원인, 근거, 확실성

## I. 서론

국어의 어미 '-ㄴ지'와 '-르지'는 의존명사 'ㄷ'를 포함한 명사구 보문 구성 '-ㄴ디, -르디' 구성에서 문법화된 어미이다.<sup>1)</sup>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에 선행하는 형태는 '-ㄴ, -는, -르'의 관형사형 어미가 올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데 이들은 동사의 어간과 결합할 때 '-ㄴ지' 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는지, -르지' 형태와 '-르는지' 형태가 나타난다.<sup>2)</sup>

(1) 가. 거기에 어떻게 {\*간지/갔는지/가는지/갈는지/갈지} 모르겠다.

나. Q: 오늘 오후에 신촌에 가요?

A: 네, 그런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할지/할는지/하는지} 모르겠어.

다. 내일 비가 오지나 {않을지/않을는지/않는지} 걱정이네요.

1) 정재영(1996:252-266) 참조.

2) '-르는지'를 선어말어미 '-었-, -겠-'과 '-는지'가 결합한 '-었는지, -겠는지'처럼 '-을'과 '-는지'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선어말어미 '-으리라-'와 '-은가'의 결합인 '-으리런가>-을년가>을런가'에 유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형태가 19세기에 갑자기 출현한 점으로 보아 '-리러-'와 '-ㄴ지'의 결합으로는 볼 수 없다. '-ㄴ지'는 동시에 선어말어미 '-더-'나 '-리러-'와의 결합이 제약적이었기 때문이다.(이지영 2008:139)

- 라. 그 사람은 오늘 안 {올지/올는지/\*오는지} 몰라요.  
 마. 누가 너와 {결혼할지/결혼할는지/\*결혼하는지} 고생길이 흰하다  
 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지/있을는지/있는지} 아침부터 까치가  
 운다.  
 사. 따님은 언제 {돌아가는지요?/?돌아갈는지요/\*?돌아갈지요?}  
 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떤지  
 요?/어떨는지요?/어떨지요?}

(1가)의 예처럼 '-ㄴ지'는 결합되지 않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었-'이 결합된 '-었는지'가 나타나야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1나, 다)처럼 '-는지'나 '-르는지', '-르지'가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세 형태가 항상 자유롭게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1라, 마)의 예문을 살펴보면 '-르지'와 '-르는지'는 교체가 가능하나 '-는지'는 불가능한 데 반해 (1바)의 예에서는 '-르는지'와 '-는지'의 교체는 가능한데 '-르지'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1가~다)는 '-는지, -르는지, -르지'가 이끄는 절은 '모르다, 걱정이다' 서술어의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어미들은 선행하는 절을 모문 서술어의 필수 문장성분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미들은 상위문 서술어에 절을 내포시킬 뿐만 아니라 (1마, 바)의 예에서 보듯이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로도 사용된다. 연결어미로 쓰일 때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르지, -르는지, -는지' 형태가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1마)에서는 '-는지'가 어색하고, (1바)에서는 '-르지'의 결합이 어색하다. 또한 이 어미들은 (1사, 아)의 예에서처럼 문장의 종결어미로도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는지, -르는지, -르지'가 (1아)에서처럼 쓰일 수도 있지만 (1사)에서처럼 '-르는지, -르지'가 어색한 경우도 있다.

본고는 기원적으로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으로 문법화된 어미 ‘-ㄴ지’ 어미의 문법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현대국어에서 어떤 문법적 특성과 의미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는지, -르지, -르는지’가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교체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교체되어 쓰일 때 과연 그 문법적인 의미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연구사

‘-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그 범주적 성격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고, ‘-는지’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논의와 여러 문법적 기능으로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는지’의 범주적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 구성으로 보는 논의와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화 어미’, 그리고 의문 어미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 이맹성(1968), 김태한(1975), 김남길(1984), 이익환(1982), 차현실(1987), 오승신(1987), 최정도·김문기(2013) 등에서는 명사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화 어미, 또는 명사화소로 논의하였고, 서정목(1997), 고영근(1997), 하치근(2006) 등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의 구 구성으로 보았으며, 임홍빈(1974), 이영민(1995), 정재영(1996), 이지영(2008) 등에서 ‘-냐, -ㄴ가’와 같은 의문 어미로 파악하고 있다.

첫 번째 논의인 ‘명사화 어미’ 또는 ‘명사화소’로 보는 논의들은 ‘-ㄴ지’ 다음에 격조사 ‘이/가, 을/를’이 결합하여 그 서술어의 문장성분으로 쓰인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 구성이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구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동사의 과거형이 '-니지'가 아닌 '-었는지'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 사이에는 '착한 그 동생'처럼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있는데 '-는지' 구성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의문 어미로 보는 논의에서는 '-니지'가 절대 문말에서 쓰일 수 있다는 점과 국어에서 의문의 영역을 표시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요'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의문 어미로 보고 있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도 '-냐'와 같은 의문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용문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인용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니지'를 종결어미로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임흥빈(1974)에서도 완전한 하나의 의문문을 구성하는 종결어미로 파악하였는데 내포문에 쓰이는 '-니지'나 연결 구성의 '-는지'가 완전한 의문문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이라는 서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

서정목(1994)에서는 의문 어미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니지'에 선행하는 절에 쓰이는 의문사가 모문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여 '-니가'와 달리 부정사로 해석된다는 점과 선문말어미와의 통합관계, 보조용언 '보-, 싶-, 하-'와의 결합에 차이를 보이는 점, 인용조사 '-고'가 '-니지'에는 쓰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명사의 지시 관계가 의문 어미 '-니가'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의문 어미가 아닌 의존 명사 구성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허웅(2000)에서도 연결어미의 활용 체계 안의 어느 한 유형에 들기 어려운 점과 서술어에 대해 성분으로 작용하는 점, 그리고 '지' 다음에 많은 조사가 붙는데 어떤 연결어미도 이렇게 많은 조사가 결합되는 것이 드물다는 점을 들어 의존명사 구성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쟁점은 격조사가 다양하게 결합되는 현상을 어떻게 파악할 것

인가와 종결어미로서의 쓰임을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종결어미로서의 쓰임이 내포문에서의 쓰임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등이다.

우선 격조사가 다양하게 결합되는 현상을 살펴보면 ‘-ㄴ지’에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양한 격조사가 결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 나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알고 있다.

나. 철수는 영희가 어디에 갔는지가 궁금하다.

다.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었다.

라. 이 책은 사업 계획서를 왜 써야 하는지에서부터 시작, 작성 방식과 그 활용에까지 이르는 구체적 사례들을 담고 있다.

(2가~라)의 ‘-는지’는 후행하는 서술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른 격조사가 결합되고 서술어에 선행하는 절은 그 서술어의 문장성분으로서 기능하여 명사절로 인식된다.

(3) 가. 우리는 그가 안 온다를 놓고 내기를 하였다.

나. 사람들은 철수가 과연 그녀와 결혼을 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다. 어머니는 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가 궁금하셨나 보다.

라. 나는 그곳에 어떻게 가나에서부터 무엇을 할지까지 모두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에서는 동사구가 내포되는 (3가~라)의 경우에도 서술어에 따라 격조사의 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ㄴ지’를 명사화 어미 ‘-음, -기’와 같은 범주로 볼 수도 있으나 의문어미 ‘-다, -냐, -는가, -냐’와 같은 범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오승신(2006:10-13)에서는 이 어미가 의문이나 의심이라는 서법적인

뜻이 없으며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냐, -는가, -나'와 달리 의문이 아닌 의문에 대한 답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4) 가. 나는 그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를 말했다.  
 나. 나는 그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고 말했다.  
 다. 나는 네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안다.  
 라. 나는 네가 화가 난 이유를 안다.  
 (오승신1986:10의 예)

(4가)의 '-는지'가 쓰인 예의 내포문의 내용은 질문이 아닌 '누구를 만나러 왔다'든가 '따지러 왔다'는 온 이유에 대해 말했다는 의미이다. (4나)의 의문어미 '-느냐'가 쓰인 경우 내포문이 의문문을 나타내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이들 어미는 '-음, -기'와 같은 의문명사화 어미로 보고 이 어미가 허용하는 술어는 모두 '사실성'을 갖는 '알다, 모른다, 밝히다, 드러나다, 중요하다, 결정하다, 결심하다' 등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ㄴ지 모른다' 구성에서 '-ㄴ지'가 명사화 어미라고 했을 때 명사화 어미가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까지 확대, 전이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국어의 명사화 어미( '-음, -기') 어느 것도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로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sup>3)</sup>

'-는지'의 통사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에는 이현희(1982), 정재영(1996), 김혜영(2006), 백낙천(2006), 고은숙(2007)과 이지영(2008) 등이 있다. 정재영(1996)에서는 중세국어의 예를 중심으로 그 기원적 구성의 문제나 동사구 내포문으로서의 용법에 집중하여 논의하였고, 이현희(1982), 김혜영

3) '-음, -기'가 개조식 문장에서 종결형으로 쓰는 경우는 있으나 이것을 종결어미로 보기는 어렵다.

(2006), 고은숙(2007)은 ‘-은디’와 ‘-을디’의 간접의문문으로서의 용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백낙천(2006)에서는 ‘-은디’와 ‘-을디’의 통시적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용법인 선택 구문의 ‘-든지’와 ‘-르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지영(2008)에서는 ‘-은디’는 동사구 내포문으로서의 쓰임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로의 통시적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을디’의 경우도 중세국어에서는 동사구 내포문으로서의 용법만 보이지만 근대국어 이후에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그 용법이 확대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는지’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이 어미를 동사구 내포문으로 보는 논의가 지배적이다. ‘-르지’에 조사가 결합되거나 상위문 서술어의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점은 의존명사 구문이나 명사형 어미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내포문 구성에서 연결어미 구성으로, 그리고 종결어미 구성으로 그 문법적인 기능이 확대되는 문법화 과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사구 내포문 어미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 Ⅲ. ‘-르지’의 문법화

앞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르지’는 그 문법적 범주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동사와 결합하는 과거 형태가 ‘-르지’가 아닌 ‘-었는지’가 쓰이고 차현실(1987)에서 논의한 것처럼 ‘-는’과 ‘지’ 사이에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없다는 점을 보면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 구성이 아닌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가. 철수가 {예전에 간/오늘 가는/ 내일 갈} 데를 기억 못했다.



- 나. 철수가 학교에 가는데 친구를 만났다.  
 나'. 철수가 학교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다. 내일은 철수가 가는데요.  
 다'. 어제는 철수가 갔는데요.  
 (6) 가. 철수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다.  
 나. 난 철수가 한국에 오는지 몰랐다.  
 나'. 난 철수가 한국에 왔는지 몰랐다.  
 다. 철수가 한국에 오는지 아침부터 엄마는 부산하게 집안 청소를 했다.  
 다'. 철수가 한국에 왔는지 아침부터 엄마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라. 철수가 한국에 오는지요?  
 라'. 철수가 한국에 왔는지요?

(5)의 의존명사 '데'와 (6)의 '지'를 살펴보면 그 문법화 과정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데'나 '지'는 모두 의존명사로 관형사형 어미가 선행하는데 이들 의존명사들은 선행하는 관형사형과 결합하여 하나의 어미로 문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두 형태에 차이가 있다면 '-는데'의 경우는 (5나, 나')의 연결어미와 (5다, 다')의 종결어미로만 쓰이는데 '-는지'의 경우는 (6다, 다')와 (6라, 라')처럼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6나, 나')의 내포문 어미로까지 쓰인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정재영(1996)과 이지영(2008)의 논의에 따르면 '-ㄴ지'는 (7가, 나)처럼 중세국어에서 동사구 내포문 어미로 쓰이거나 (7다)처럼 반복 구문으로서의 동사구 내포문 어미, 선택 구문의 어미로 먼저 쓰이다가 근대국어 이후 (7마, 바)처럼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의 쓰임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19세기 이후에는 '알-'이나 '모르-' 외에도 다양한 서술어들이 '-ㄴ지'를 내포문으로 취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점<sup>4)</sup>

을 감안해 보면 의존명사 구성에서 내포문 어미로, 여기에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확대되어 가는 문법화 과정을 겪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 (7) 가. 이 相公의 軍인디 아노니 甲 니븐 므른 구루미 답사했는 듯도다  
 <두시 7:25a>
- 나. 光日이 對答호되 내 어미 업슨 나래 福을 보타 求하야 袞혀되 내  
 어미 아모되 넛는디 몰래이다 <월석 21:53a>
- 다. 太子 | 이실 쩌기 상네 너와 혼되 잇더니 이제 바르래 드러가 묻  
 도라예실쨌 주근디 산디 내 一定 혼 귀벼를 몰라 호노니 <월석  
 22:61b>
- 라. 經에 異字 字 업수븐 시혹 단디 시혹 略흔디 쁘든 반되기 ㄱ초  
 잇느니라(經無異字者는 或脫흔디 或略흔디 義는 必 具有하니  
 라) <원각 하 3-2:52a>  
 (이지영 2008:118의 예)
- 마. 내 인칭은 도히 인는 이리 귀티 아녀 의셔 죽고져 호되 수미 긴디  
 지그미 사라 이시니 <청주간찰12>
- 바. 사름이론디 심탐호고 안정호며 즈셔호고 슬퍼 미양 나들어 殿門에  
 느릴 제 나으며 그침이 텃던 혼 곧이 잇더니 <소학 6:33b>
- 사. 하늘이 므스 허물을 보오신디 이런 설운 일을 보게 하시니 <계축  
 상 37b>  
 (정혜선 2014:178의 예)

(7가, 나)는 15세기 자료의 예로 ‘-느지’가 ‘알다, 모르다’ 동사에 내포되어 쓰인 예이고 (7다, 라)는 반복 구성으로 쓰인 예이며 (7마, 바)는 연결어미의 예로 16세기, 17세기 자료에 나타난 것이다. (7다, 라)의 반복 구성의

4) 김혜영(2006:117)과 고은숙(2007:253) 참고.

예를 보면 '주근디 산디' 사이에 의미상 동격인 '내 一定 혼 귀벼를'이 삽입되어 있고, '시혹 딘디 시혹 略 혼디'는 '몰라도' 정도의 상위문 동사가 생략되고 후행절이 연결되고 있는 구성이다. '-니지'가 연결어미로 문법화할 수 있었던 것은 '-니지'와 서술어 '알다, 모르다'에 다른 성분이 삽입되거나 상위문 동사의 생략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sup>5)</sup> 16세기 자료에 나타난 연결어미 용법으로 쓰인 (7사)의 경우에도 '보 오신디'와 후행절 사이에 '몰라도, 모르겠지만' 정도의 상위문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8) 가. 오직 圓覺을 隨順 혼는 므스미 凡을 브터 聖에 니르리 엇데 差別 혼 디 곶히디 物홀시 버겨 불기시니라 (但未辨隨順圓覺之心 從凡至聖히 如何差別故로 次明之 혼시니라) <원각하 1-2:1b>
- 나. 게 가 방이 뻘죽 혼디 物 뻘죽 혼디 보고사 내 혼 마를 니르고져 혼노라 <번노 상 67b>
- 다. 선싱이 옮겨스면 천컨딘 어느 곳에 두엇는지 말 혼 쇼셔 <예수성골 너서 요한 복음 20:15절>
- 라. 주인 덕답이 그덕가 이전에는 놀고도 잘 살더니 지금은 엇지 못 사 혼 지요 그 사름 말이 내가 다히히 상놈되지 안코 사부의 즈식되여 디테며 <독립 1897/1/30 잡보>

이지영(2008:120-123)에 따르면 '-니지'가 근대국어 이후 동사구 내포문에 쓰이는 예가 크게 증가하는데, 중세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알-'나 '모르-'의 내포문에 쓰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8가, 나)의 예를 살펴보면 15세기, 16세기 자료에도 '-니지'에 후행하는 상

5) 정혜선(2014:179)에서도 '-니지 알다/모르다' 구문이 다른 성분이 삽입되는 이런 예에서부터 점차 긴밀성이 약해지면서 연결어미로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위문 서술어로 ‘알다/모르다’ 외에 다른 서술어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엇네 差別흔디 굴히디 몰홀식’나 ‘뽻죽흔디 몰 뽻죽흔디 보고샤’처럼 ‘굴히디(구별하지)’와 ‘보고샤(보려고)’와 같은 상위문 서술어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구성은 문맥상 ‘엇네 差別흔디’와 ‘굴히디’, ‘뽻죽흔디 몰 뽻죽흔디’와 ‘보고샤’ 사이에 ‘몰라서’ 정도의 상위문 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세국어에서부터 ‘-니지’는 연결어미로의 문법화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5세기 자료에 나타난 ‘-니지’의 많은 예들이 ‘알-/모르-’의 인지 동사를 상위문 서술어로 가지고 동사구 내포문에 주로 쓰이고 있다. 연결어미로 쓰일 경우에는 반복적인 구성에서 소수의 예가 보이고 16세기가 돼서야 단독적인 구성에서 연결어미의 쓰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sup>6)</sup> 그리고 (8라)에서처럼 종결어미로서의 용법은 19세기나 되어서야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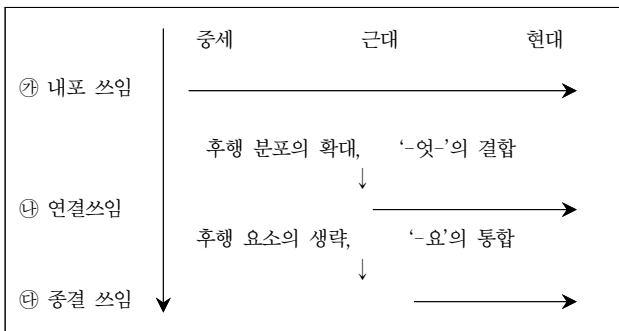
그러므로 ‘-니지’의 문법화는 ‘관형사형 어미+의존명사’ 구성에서 ‘동사구 내포문 어미로서의 쓰임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반복 구성에서 연결어미의 쓰임이 먼저 나타나고, 근대국어 이후에 단독 구성에서 연결어미의 쓰임이 나타나며 19세기 이후에 종결어미로서의 용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6) 이지영(2008:120)의 ‘-니지’의 구문이 보이는 빈도와 출현 순서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문 유형		15세기	16세기
동사구 내포문	단독	14(77.8%)	1(12.5%)
	반복	1(5.6%)	2(25.0%)
NP와 동일지시적인 반복의 ‘-은디’		1(5.6%)	0(0.0%)
연결어미	단독	0(0.0%)	4(50.0%)
	반복	2(11.1%)	1(12.5%)
계		18(100%)	8(100%)

최정도·김문기(2014:25)에서는 그간 통사적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니지'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그림1>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림1>은 내포문 어미로서의 쓰임은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에까지 그 쓰임이 유지되고 연결어미의 쓰임은 근대국어 이후부터 현대국어까지, 그리고 종결어미로서의 쓰임은 근대국어 이후부터 현대국어까지 쓰이고 있고 그 문법적인 기능은 내포문 어미에서 연결어미로,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기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내포문 어미에서 연결어미로의 문법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니지' 어미 뒤에 '모르다, 알다' 외에 여러 상위문의 분포가 확대되고 선어말어미로 '-었-'이 결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문법적 기능이 전이될 때는 후행 요소, 즉 후행절이 생략되고 '요'가 통합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림1> '-니지'의 발달 과정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은 '-니지'의 내포문 어미 용법이 중세국어에 가장 먼저 널리 나타나고 연결어미 용법이 근대국어에 나타나며 종결어미 용법이 19세기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여 [그림1]처럼 내포문 어미에서 연결어미가 나오고,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문법화되었

다고 할 수 있는가이다.

- (9) 가. 經에 異字 字 업수문 시혹 단디 시혹 略흔디 ㅍ든 반드기 ㄱ초  
잇느니라 (經無異入字者는 或脫흔디 或略흔디 義는 必 具有흔디  
라) <원각 하 3-2:52a>
- 나. 내 인칭은 도히 인는 이리 귀티 아녀 의셔 죽고져 호디 수미 긴디  
지그미 사라 이시니 <청주간찰12>
- 다. 하늘이 므슴 허물을 보오신디 이런 설운 일을 보게 하시니 <계축  
상 37b>

15세기와 16세기에 연결어미적 용법을 보이는 (9가~나)의 예들을 살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혹 단디 시혹 略흔디 몰라도’, ‘수미 긴디 모르겠지만’, ‘보오신디 몰라도’ 정도에서 상위문 서술어 ‘모르-’가 생략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종결어미의 용법이 연결어미 구성에서 나왔는지는 의심스럽다.

- (10) 가. 판옥이 소령<sup>하</sup>야 줌 자기 어렵도다 역관들 껏<sup>터</sup> 드러 므스 말 의논  
인지 새도록 요란<sup>히</sup>니 <일동 128>
- 나. 개도 손 드러오기를 췌하<sup>는</sup>지 꼬리 치고 아론 체<sup>히</sup>니 아니 기대  
흐온가 <隣語1:18a>
- 다. 오늘 식당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10분 만에 똑딱 해치웠다.

연결어미로 쓰이는 ‘-지’의 경우 (10가~다)에서 보듯이 후행절 결과에 대해 화자가 추측한 내용이 원인일 때 결합된다. 그러나 다음 (11)의 종결어미로 쓰일 때는 [추측]이라는 의미도 [원인]이라는 의미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1) 가. 그러나 저러나 이번 일에 댁에 영감마님께서는 괜찬케 되시였는지  
요? 하고 걱정이 된다는 듯이 물었다. <신숙주부인전 구할자본 고  
 소설전집 8권>

나. 수인: 정말 감사해. 나 몸도 안 좋고, 마음에 차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셨을 텐데.

현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네 아버지 뭘 믿고 나한테 널 주셨  
는지. 너무너무 감사해. <러브스토리인하버드 17>

다. 은서: 두 달은 넘었지?

순임: 한참 걸렸어. 돈은 또 얼마나 들어먹었는지.

은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종결어미 용법으로 쓰이는 (11가~다)의 예를 살펴보면 ‘괜찬케 되시였  
 는지요’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고 (11나)의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  
 운 상황에 대해 자문하듯이 쓰는 경우이며 (11다)는 아주 돈을 많이 들어  
 먹었다는 탄식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 예문들을 살펴보면 ‘되시였는지요,  
 주셨는지, 들어먹었는지’는 ‘되시였는지 몰라요, 주셨는지 몰라, 들어먹었  
 는지 몰라’ 정도로 ‘모르다’의 상위문 서술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즉, 종결어미 용법으로 쓰이는 예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화  
 자의 ‘추측’이나 ‘원인, 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되  
 었다기보다는 의문을 나타내는 내포문 어미 ‘-ㄴ지 모르다’ 구성에서 상위  
 문 서술어 ‘모르다’가 생략되고 의문이나 자문, 탄식의 의미를 갖는 어미가  
 생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sup>7)</sup>

7) 정혜선(2014:183)에서도 종결어미 ‘-ㄴ지’는 동사구 내포문 어미로 쓰이던 ‘-ㄴ지 알  
 다/모르다’ 구문에서 기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내 모르리로다 너는 어딴로써 온  
 나그넨지<중간노걸대 상43b>’에서처럼 ‘-ㄴ지’가 결합한 보문과 상위문 동사가 도치  
 되어 쓰이다가 상위문 동사가 생략되는 과정을 거쳐 종결어미 ‘-ㄴ지’가 나타난 것이  
 라고 하였다.

근대국어 이후 생성된 많은 해체 종결어미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후행절이 생략되어 만들어진 형태들이 있고 상위문 서술어가 생략되어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가. Q : 철수가 언제 온다고?

A : 이따가 온다고.

A' : (내가) 말했잖아, 이따가 온다고.

나. Q : 철수가 바쁘다면서?

Q' : 철수가 바쁘다면서 뛰어가던데 정말이야?

A : 네, 많이 바쁘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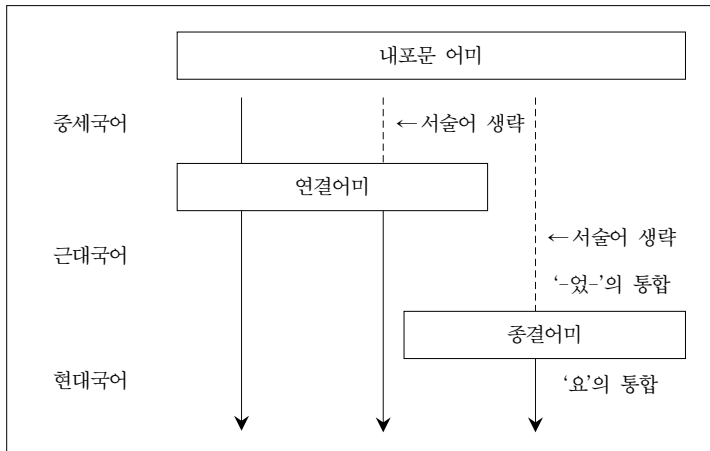
다. 오늘 체육 시간에 씨름을 배웠거든.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씨름판을 벌이다가 한 아이가 다쳤어.

(12가)의 ‘-다고’는 상위문 서술어 ‘말하다’가 생략되면서 문법화된 어미로 볼 수 있는 반면, (12나)의 ‘-다면서’는 (12나Q') 정도의 문장에서 후행절이 생략되고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sup>8)</sup> (12다)의 ‘-거든’도 ‘비가 오거든 우산을 가지고 가라.’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에서 ‘앞으로 할 어떤 이야기의 전제로 베풀어 놓을 내용’에 결합되는 종결어미로 쓰이는데 이 경우도 후행절이 생략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는지’의 경우는 ‘-다면서’나 ‘-거든’처럼 후행절의 생략으로 종결어미가 된 것이 아니라 전자인 ‘-다고’와 같이 후행하는 상위문 동사가 생략되면서 문법화가 일어난 어미로 볼 수 있다.

8)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에 대해서는 이금희(2006) 참고.



〈그림2〉 '-ㄴ지'의 발달 과정



그러므로 '-ㄴ지'는 <그림1>과 같이 내포문 어미에서 연결어미로 확장되고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2>와 같이 중세국어로 널리 쓰이는 '-ㄴ지' 내포문 구성이 들어있는 복문에서 내포문의 상위문 서술어 '모르-'가 생략되고 다른 절이 후행하면서 연결어미로 문법화되었으며, 근대국어 이후에는 내포문 구성의 상위문 서술어 '모르-'가 생략되면서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대국어에서 '-었-'이 과거 시제 형태로 나타나면서 '-ㄴ지' 형태는 사라지고 '-었는지' 형태가 쓰이기 시작했으며 19세기 이후에는 종결어미에 '요'가 통합되어 상대방에게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이게 된 것이다.

#### IV. '-ㄴ지'의 통사적·의미적 특성

'-ㄴ지, -르지, -르는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문이나 의심을 나

타내는 내포문 어미와 추측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그리고 화자의 의문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다.<sup>9)</sup> 먼저 ‘-리지’가 내포문 어미로 쓰이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 경우이다.

- (13) 가. 나는 거기에 누가 가는지 몰랐다.
  - 나. 아직도 철수는 집에서 안 떠났는지 모른다.
  - 다. 이 물건은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른다.
  - 라.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르겠다.

‘-리지’의 의미는 먼저, (13가)처럼 상위문 주어에 의문시하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 많은 사전에서 ‘막연한 의심이나 의문’

9) 대부분의 한국어 문법 사전에서도 ‘-는지, -르는지, -리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막연한 의문, 화자의 추정,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낸다고 기술되고 있다. 다만 내포문 어미와 연결어미로서의 쓰임을 모두 연결어미의 쓰임으로 분류하고 종결어미로서의 쓰임을 아직은 종결어미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형으로 보고 있다.

		한국어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이희자·이종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국립국어원)
-리지	내포	막연한 의문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 가능성에 대한 추측 앞 내용에 대한 걱정
	연결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화자의 추정함	막연한 이유나 상황을 추정
	종결	화자의 의심이나 의문	화자의 의문
-는지	내포	막연한 의문	막연한 의문
	연결	매우 그러하다고 강조함 뒷절의 의문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	매우 그러하다고 강조함 뒤 절의 의문에 대한 근거나 원인
	종결	화자의 의문이나 의심 감탄	상대방에게 완곡하게 물음 그 상황이 상당함을 말하는 사람이 감탄하듯 강조
-르는지	내포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짐을 나타냄	앞 내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연결	어떤 사실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그 실현 여부에 대해 화자가 추정함 근거나 원인	화자가 추정하는 근거나 원인
	종결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의문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의문

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13나)처럼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때 '추측'의 의미는 '-ㄴ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ㄴ지 모르다' 전체 구성에서 발생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13다)의 '얼마나 비싼지 모르다'에 놀라거나 감탄할 정도로 '아주 비싸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ㄴ지'가 '추측'을 나타내거나 '놀라거나 감탄할 정도로 그러하다'를 나타낼 때는 하나의 관용구로 굳어져 '모르다' 서술어가 고정되어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13가)는 상위문 서술어가 '모르다, 알다'의 인지 동사 외에도 '기억하다, 이해하다, 밝히다, 연구하다, 조사하다, 말하다, 궁금하다, 결정하다' 등 다양한 동사들이 쓰일 수 있다.<sup>10)</sup> (13라)는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의문을 가짐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인데 (13가)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로 보인다. 의문사가 들어있는 '누가 가는지 몰랐다'나 의문사가 없는 '그가 가는지 몰랐다', 선택할 대상을 나열한 '영희가 가는지 철수가 가는지 몰랐다.' 모두 '-ㄴ지'에 선행하는 내용에 의문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막연함]이란 의미 자질은 있는가.

(14) 가. 나는 거기에 누가 가는지 말했다.

나. 나는 철수에게 거기에 누가 가는지 대답했다.

다. 철수는 나에게 거기에 누가 가는지 알렸다.

라. 나는 거기에 누가 가는지 정확히 밝혔다.

10) '-ㄴ지'에 후행할 수 있는 동사들에 대해서는 오승신(1986:20)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사실의 인지를 나타내는 서술어(알다, 느끼다, 기억하다...), 사실의 탐구를 나타내는 술어(밝히다, 연구하다, 조사하다...), 사실의 전달을 나타내는 술어(알리다, 말하다, 폭로하다...), 사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술어(상관하다, 관계하다, 중요하다), 사실의 인지 가능성을 나타내는 술어(분명하다, 뻔하다, 불확실하다), 행동의 결정을 나타내는 술어(결정하다, 결심하다, 망설이다)와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14가~라)처럼 상위문 서술어가 ‘모르다’가 아닌 ‘말하다, 대답하다, 알리다, 밝히다’가 되면 의문시하는 내용이 막연하다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의문에 [막연함]이라는 의미 자질이 느껴지는 것은 ‘-는지’의 것이라기보다는 상위문 서술어가 무엇인지와 상황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14')가. 나는 거기에 누가 가느냐(고) 말했다.  
 가'. 나는 거기에 누가 가는가 말했다.  
 나. 나는 철수에게 거기에 누가 가느냐(고) 대답했다.  
 나'.?\*나는 철수에게 거기에 누가 가는가 대답했다.  
 다. \*철수는 나에게 거기에 누가 가느냐(고) 알렸다.  
 다'.?철수는 나에게 거기에 누가 가는가(를) 알렸다.  
 라. \*나는 거기에 누가 가느냐(고) 정확히 밝혔다.  
 라'.?나는 거기에 누가 가는가(를) 정확히 밝혔다.

내포문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는 ‘-는지’ 외에도 ‘-냐, -는가’ 등이 존재한다. 일단, (14')에서 보듯이 ‘-냐’와 비교해 보면 ‘-냐는 ‘말하다, 묻다, 대답하다’ 동사와는 나타나나 ‘알리다, 밝히다’ 동사와는 부자연스럽다. 또한 ‘거기에 누가 가느냐고 말했다.’라고 할 때는 말한 내용이 질문임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누가 가는지 말했다.’는 말한 내용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한 것이라는 점은 (14'가')의 ‘-는가’가 쓰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는가’는 ‘-냐’와 달리 (14'가'~라')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상위문 동사의 제약도 거의 없다.

서정목(1994)에서는 ‘-는가’와 ‘-는지’가 여러 통사적 차이를 보이면서 ‘-는가’는 간접의문 어미로 볼 수 있지만 ‘-는지’는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로 ‘-는지’의 내포절 의문사가 모문에까지 영향을 미치

지 못해 '-ㄴ가'가 쓰이는 경우와 달리 부정사로 해석되는 점이나 보조용언 '보-, 싶-, 하-'와의 결합에서 차이를 보이는 점, 인용 조사 '고'가 '-는지'에는 쓰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ㄴ가'와 '-ㄴ지'가 다른 문법 범주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ㄴ지' 구문에 들어있는 '누구, 무엇, 어디' 등이 부정사로 해석되는 것이 '-ㄴ지'를 간접의문 어미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 (15) 가. 내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어디/집에} 간다고 대답했다.  
 나. 내가 어디 가는지 물으니 {어디/집에} 간다고 대답했다.  
 다. 내가 어디 가는가 물으니 {?\*어디/집에} 간다고 대답했다.

(15가, 나)의 예문을 보면 '-느냐'와 '-는지'가 쓰인 문장의 '어디'는 의문사나 부정사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것의 의미는 질문자가 의문사로 물었는지 부정사로 물었는지에 따라 대답이 '어디'라고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장소인 '집'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5다)의 '-ㄴ가'가 쓰인 경우는 의문사로만 해석이 가능하고 부정사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즉 '-느냐'가 간접의문 구성에 쓰인 어미라고 할 때 '-ㄴ지'가 부정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간접의문 어미라는 것의 반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조용언 '보-, 싶-, 하-'와의 결합 가능 여부도 '-ㄴ가'가 간접의문 어미로서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ㄴ가 보-/싶-/하-' 구성이 추측의 우연적 구성으로 고정화되는 것으로 '-ㄴ지'가 이들 보조용언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 간접의문 어미가 아닌 것의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오히려 (14')의 예처럼 '말하다, 알리다, 밝히다'와 같은 본동사들이 쓰이는 구문에서 두 어미는 간접의문 어미로서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

다. 그리고 인용조사 ‘고’는 ‘-다, -냐, -자, -라’와는 결합이 자연스럽게만 (14 ‘가’ ~라’)과 같은 문장에 ‘-ㄴ가’ 다음에 ‘고’를 결합시키는 것도 어색해 보이고 간접의문 어미로 쓰이는 ‘-나’ 또한 ‘고’의 인용조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인용조사 ‘고’의 결합이 간접의문 어미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것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

‘-ㄴ가’가 중세국어에서 주로 간접 의문이나 자문에 사용되다가 근대국어에 와서 직접 의문에 사용되면서 상대 높임의 등급이 생겼다는 점<sup>11)</sup> ‘-ㄴ지’가 내포문 구성으로 쓰이다가 근대국어 이후에 종결어미로 사용되어 상대 높임의 등급을 가지게 되는 것과 역사적 발달 과정이 유사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두 어미 모두 내포문의 간접의문 어미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16) 가. 나는 왜 항상 바보 같은 행동만 하는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나. 오늘은 그가 오는지요?  
 다. 나는 왜 항상 바보 같은 행동만 하는가. 나의 뇌 구조를 들여다보고  
 싶다.  
 라. 비가 오면 행사는 취소되는가요?

(16가, 다)에서 ‘-는지, -는가’는 자문을 나타내지만 (16나, 라)처럼 ‘요’를 결합시키는 구성에서는 확실히 청자에게 질문을 하는 의문문의 형식을 띤다. 자문을 나타내는 (16가)와 (16다)의 차이는 전자는 자문의 성격이 [주관성]을 띠는 것에 비해 후자는 [객관성]을 띠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의미적인 차이로 ‘-는지’형은 주로 일상생활의 구어에서 쓰이고 ‘-는가’는 보고서와 같은 문어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12)</sup>.

11) 고은숙(2011:397) 참고.

- (17) 가. 음식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밥을 거의 다 남겼다.  
 가'. 음식이 아주 맛이 없어서 밥을 거의 다 남겼다.  
 나. 영희는 몸이 약한지 자주 감기에 걸린다.  
 나'. 영희는 몸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린다.  
 다. 어젯밤에 만들었는지 아이의 책상 위에 모형 자동차가 놓여 있었  
 다.<sup>13)</sup>  
 다'. \*어젯밤에 만들어서 아이의 책상 위에 모형 자동차가 놓여 있었다.

(17가~다)는 '-니지'가 연결어미로 쓰인 예로 모두 후행절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으로서 전개되는 사건들에 결합된 것이다. (17가, 나)는 그 배경이 후행절의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얼마나 맛이 없는지'는 맛이 없는 정도가 놀랄 정도로 심해서라는 의미라면 '몸이 약한지'는 자주 감기에 걸리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 화자의 불확실한 추측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7가)를 (17가')의 '어서'가 쓰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놀라거나 감탄할 정도로 그 정도가 커서'라는 양태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17나)를 (17나')와 비교해 보면 (17나')는 선행절의

12) 신문이나 보고서, 논문 등에서 주로 '-는가가 나타나고 '-는지' 형태는 볼 수 없는 것은 '-니지'가 '-니지 모르다'라는 화자의 개인적인 인지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서 문법화되었기 때문에 [+주관성]을 띠는 것이라고 보인다.

가. 쓰레기를 수거해 모두 차창 밖으로 버린다.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는가?(\*가겠는지) 그러니 철도 주변이 쓰레기장과 같지 않겠는가?(\*같지 않겠는지)

나. 대통령후보의 말이 자기 편한 대로 바뀐대서야 어찌 믿음이 가겠는가.(\*가겠는지) 대북 포용정책이란 한 정권이나 한 정치지도자의 말 바꾸기로 왔다 갔다 <중앙일보>

다. 부서의 감독책임자 등 누구 하나 징계조치 받지 않는대서야 어떻게 수공이 가겠는가.(\*가겠는지) 김영호란 군무원은 또 홍콩으로 도주 직전에 사직서와 휴직서 두 개를 <조선일보>

13) 이런 예들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새 한 마리가 창가에 앉아 있다.'나 '그녀가 돌아왔는지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다.' 등이 속한다.

원인으로 후행절의 결과가 나온 것임을 나타내는 반면 (17나)는 후행절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화자가 추측한 불확실한 것임’을 ‘-ㄴ지’가 나타내고 있다. (17다)는 원인이나 근거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후행절의 내용이 선행절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발생된 것이라는 관련성은 있으나 이때 ‘-ㄴ지’는 ‘원인’이라기보다 ‘화자가 추측한 불확실한 배경’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7가)는 (13다)의 ‘얼마나/어찌나 ~ㄴ지 모르다’의 감탄 구성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이고 (17나, 다)는 (13가, 나)의 화자의 불확실한 추측과 의문을 나타내는 구성에서 각각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18) 가. 수인: 정말 감사해. 나 몸도 안 좋고, 마음에 차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셨을 텐데.

현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네 아버지 뭘 믿고 나한테 널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해.

나. 난중에 들으니께 죽었다는 거, 을때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죽었다는 소식엔 들었지만 내 못 가 봤어.

다. 오기 전에 시아버지 묘소엘 갔지. 우리 애 앞세우고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참 어렵게 지내면서도 울지를 않았는데, 한없이 울었어.

라. 귀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가~라)는 종결형에 쓰이는 예인데 (18가~다)는 독백하듯이 자문하는 상황과 어떤 감정 상태가 아주 심했다는 것을 감탄조로 말하는 상황에 쓰이고 (18라)는 청자에게 완곡하게 질문을 하는 상황에 쓰인다.

(18') 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네 아버지 뭘 믿고 나한테 널 주셨는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해.

나. 난중에 들으니께 죽었다는 거, 을때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몰라. 죽



었다는 소식인 들었지만 내 못 가 봤어.

다. 오기 전에 시아버지 묘소엘 갔지. 우리 애 앞세우고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라. \*귀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18' 가~라)에 '모르다' 동사를 삽입했을 때 (18' 가~다)는 (18  
 가~다)의 문장과 큰 의미 차이가 없이 가능한 데 반해 (18' 라)는 불가능  
 하다. 이것을 보면 자문하거나 감탄을 할 때 쓰이는 종결형은 아직 완전한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듯하고 (18라)처럼 상대방에  
 게 완곡하게 물어보는 상황에서는 종결어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V. '-ㄴ지'와 '-ㄹ지', '-ㄹ는지'의 의미 차이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ㄴ지'와 거의 유사한 문법적 특성과 의미 특성  
 을 가지고 있는 어미가 '-ㄹ지'와 '-ㄹ는지'이다. '-ㄹ지'는 형태적으로만  
 보면 이미 발생한 사건에 쓰이는 '-ㄴ지'와 현재 발생하는 사건에 사용되  
 는 '-는지'와 궤를 같이 하여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쓰이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런데 '-ㄴ지' 어미는 과거형인 '-ㄴ지' 대신 '-는지'에 '-었-'이 결합  
 되어 나타나고 '-는지' 자체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  
 에 발생할 사건에도 쓰인다.

(19) 가. 먹기는 먹고 있지만 내가 지금 뭘 {먹는지/\*먹을지/\*먹을는지} 몰  
 라요.

나.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갈는지/갈지} 모르겠다.

다. Q: 오늘 오후에 신촌에 가요?

A: 네, 그런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할는지/할지}를 모르겠어.

실제로 발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19가)에서처럼 ‘-는지’만이 가능하고 ‘-르지’와 ‘-르는지’가 불가능하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화자의 의문에 대해서는 (19나~라)처럼 ‘-르지’뿐만 아니라 ‘-는지’와 ‘-르는지’ 모두 가능하다.

(20) 가. 입을 조심해야지, 잘못 하다가는 또 무슨 변을 {당할는지/당할지/\*당하는지} 몰라.

나. 대형스크린을 꼭 배우는 배우로 과연 자리할 수 {있을는지/있을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일 비가 오지나 {않을지/않을는지/\*않는지}가 걱정이네요.

그러나 (20가~다)와 같은 예를 보면 ‘-르는지’와 ‘-르지’는 가능하나 ‘-는지’는 어색하다. 그렇다면 (19가~라)와 (20가~다)의 차이는 무엇인가. (19나, 다)의 예들은 실제로 ‘-는지, -르는지, -르지’에 선행되는 사건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그러나 (20가~다)는 화자가 막연히 가정하고 있는 것들로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19)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21) 가. 감기가 {드는지/\*들는지/\*들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나.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는지/생길는지/\*생길지} 아침부터 까치га운다.

다. 따님은 미국으로 언제 {돌아가는지요?/\*돌아갈는지요?/\*돌아갈지요?}

라. 자신의 몸을 위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떤지요?어떨는지요?어떨지요?}

(21가, 나)는 선행절 사건이 발생하는 전조 증상이 후행절에 나타나는 예들인데 (21가)는 감기가 드는 것에 대한 전조 증상이 실제 경험치가 후행하는 경우이고 (21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아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실제 경험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21가)의 경우는 '-르는지'와 '-르지'는 부자연스럽고 '-는지'만이 가능한 데 반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21나)의 경우는 '-는지'와 '-르는지'는 가능하나 '-르지'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종결형으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21다)처럼 유학하는 딸이 방학에 놀러 온 경우 언제 돌아가는지를 묻는 상황에서는 -는지요는 자연스러우나 '-르는지요'나 '-르지요'는 부자연스럽다. 딸이 돌아가는 사건은 실제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다. 그러나 (21라)처럼 청자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근거나 확신이 전혀 없을 때는 '-는지, -르는지, -르지' 모두 자연스럽다. '-는지'를 쓸 경우 그것의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나타내는 데 비해 '-르는지'와 '-르지'로 갈수록 그 발생 가능성이 떨어지는 가정된, 혹은 막연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 (22) 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는지도/주셨을지도/주셨을지도} 몰라요.  
 나. 그 사건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아팠을는지/\*아팠을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다. 그 사건으로 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아팠을는지/아팠을지} 나오서는 알 길이 없다.

(22가)는 화자가 생각하기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에 대해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인데 확신이 강할 때는 '주셨는지도'를 쓰고, 그러한 확신의 정도가 떨어질 때는 '주셨을지도'와 '주셨을지도'를 쓴다

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직접 경험한 (22나)와 같은 문장에서는 ‘아팠는지’는 가능하나 ‘아팠을는지’와 ‘아팠을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추측하는 (22다)에서는 세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 VI.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국어의 어미 ‘-ㄴ지’의 문법화 과정을 살피고 그것의 통사적인 특징과 의미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ㄴ지’는 중세국어에서 동사구 내포문 어미로 주로 사용되다가 상위문 서술어의 생략 현상을 통해 그 문법적 기능이 연결어미로 확대되었고, 근대국어 이후에는 상위문 서술어의 생략으로 종결어미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현대국어에서 ‘-ㄴ지’는 동사구 내포문 어미일 때는 의문을 나타내거나 추측, 그리고 놀라거나 감탄할 정도로 그리함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인다.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화자가 놀랄 만한 정도성을 가진 원인과 화자의 막연한 추측을 담은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후행절 사건이 일어날 전제가 되는 배경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이는데 이때의 배경은 화자가 추측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결형에 쓰이는 경우는 감탄이나 자문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아직 종결어미로서 문법화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완곡한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만 종결어미로 문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는지’는 발화 시 일어나는 사건에도 쓰이지만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도 쓰이는데 이런 상황에는 ‘-르는지’나 ‘-르지’ 형태가 교체되어 나타날 수 있다. 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는 ‘-는지’가 사용되고 그 가능성이 낮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르는지’, ‘-르지’ 순의 형태가 선택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로 인해 확실성이 높은 사건 다음에는 '-ㄴ는지'와 '-ㄴ지'의 분포가 제약된다.

## 【참고문헌】

- 고은숙,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2011.
- 박재연,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한국어학』43, 2009, pp.151-177.
- 백낙천, 『-든지, '-은지', '-을지'의 형태론적 구성과 의미』, 『새국어교육』 제72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pp.273-290.
- 서정목, 『국어 통사 구조 연구1-구절구조, 의문법, 경어법』,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4, pp.208-237.
- 오승신, 『-ㄴ지'의 통사적 기능 전이에 따른 의미변화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유현경, 『관형사형 어미 '-을'에 대한 연구-시제 의미가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어문학』 104, 2009.
- 이기중, 『-(ㄴ지/ㄴ지) 모른다, '-기 쉽다'의 의미 기능』, 『한남어문학』21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96, pp.241-260.
- 이금희,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국어학』48, 국어학회, 2006, pp.233-258.
- 이현희,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15, 1994, pp.57-81.
- 이영민, 『내포문 의문 어미 '-ㄴ지'에 대한 고찰』, 『서강어문』11, 서강어문학회, 1995, pp.61-84.
- 이지영, 『'-은지'와 '-을지'의 통사적 변화』, 『국어학』53, 국어학회, 2008, pp.113-140.
- 임동훈,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26, 한국어 의미학회, 2008, pp.211-249.
- 정재영,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태학사, 1996, pp.59-77, pp.251-266.
- 정혜선, 『양태 어미의 사적 변화 '-ㄴ지, -ㄴ지』, 『한국어 어미의 문법(언어와 정보사회 학술 총서02, 서정목 외)』, 역락, 2014, pp.158-194(정혜선 박사학위논문(2013) 정리)

최정도·김문기, 「-ㄴ지'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내포문에서의 쓰임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33집, 2013, pp.5-31.

하치근, 「'지 짜임awl'의 문법화 과정 연구」, 『우리말연구』18집, 2006, pp.27-55.

허웅,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grammaticalization and syntactic-seman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ending '-nji(ㄴ지)'

Lee, Keum-he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grammaticalization of Korean ending '-nji(ㄴ지)' and its syntactic-semantic characteristics. In the Middle Korean, '-nji(ㄴ지)' was used as an ending of embedded sentence of verb phrase and then a connective ending in the early modern Korean. Since the 19th century, this ending also was used as a final ending. This extension of usage was caused by disappearance of predicate in matrix sentence.

An ending of embedded sentence of verb phrase, '-nji(ㄴ지)' represents the question, the presumption or the emphasis of the speaker. And connective ending '-nji(ㄴ지)' represents the cause that speaker presume, the cause which was emphasized. Also, It represents the condition of following clause that speaker presume. Lastly, final ending '-nji(ㄴ지)' represents a euphemistic question.

'-nji(ㄴ지)' used to represent the event took place in future. And this case is used '-lnji(르는지)' or '-lji(르지)' too. These endings are selected by how have so much the reliability of the accident happened.

Key Word : grammaticalization, ending of embedded sentence of verb phrase, connective ending, final ending, cause, presumption, condition, reliability

이금희

소속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강의전담 조교수

전자우편 : dawon4068@kookmin.ac.kr/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8월 5일 게재 확정됨.